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요 5:17,18).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와도 부자의 관계를 맺고 계시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외에는 그 사명을 수행할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겔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실 때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아무도 감당치 못할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고 계시는 아버지의 친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일은 철저한 희생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단호한 사랑의 계획만이 비길 데 없이 처참한 이 광경을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품으신 사랑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시고도 고통을 줄이지 않으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진노를 받아, 버림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 그 희생의 공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시되, 우리의 구원질나도록 부패해 버린 상태, 무거운 죄책에 눌러 있는 상태, 비참하도록 곤궁한 상태, 비뚤어진 성품,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결핍까지 다 알고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 모두를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조금도 맛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랑인지요!

우리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지니고 있어야 할 흠 없는 완전성에 대해 염려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신 권세는 결코 허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한 곳에 모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023 추석명절 가정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명절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사 14:27]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화교회**

묵상기도 인 도 자

묵상기도로 2023년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9)
 아멘.

사도신경 다 갈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가 527장 다 갈 이

- 1절**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 2절**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열어놓고 마음 줄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 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 3절**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 해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 오오 어서

기도인도 가족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추석을 맞아 한 곳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으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가족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로마서 8장 32절 다 갈 이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설 교 뒷 면 참 조 인 도 자

합심기도 다 갈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